

인적자본 투자와 여성의 지속적 경제활동*

곽은혜**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 15~64세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시작되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노동 공급 부족과 부양비 가중을 야기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성장을 제한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장기적 노력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력 활용과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 이 중 여성 인력 활용에 대한 중요성은 특히 높아지고 있다.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는 높은 인적자본을 지닌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 경제활동 참여의 중요성은 성평등, 노동시장 다양성 확대, 여성의 자립과 경력 개발을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관 변화의 측면에서도 강조된다.

여성의 고학력화에 따라 우리나라 청년 여성들의 고용률은 높아졌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여전히 출산과 자녀 양육의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는다. 여성은 출산 후 경력단절의 위험이 존재하고, 출산 후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경우에도 임금 하락을 경험한다.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학력이 높은 우리나라 여성의 경력단절은 개인의 경제적 손실일 뿐 아니라 국가의 인적자본 활용에도 비효율적이고, 출산 후 빈번하게 관찰되는 자녀 페널티(child penalty)는 무자녀 여성의 출산 결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경력단절은 인적자본 마모와 낙인효과의 이유로 재취업 이후에도 임금 하락의 문제를 야기하고, 그 부정적 영향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인적자본의 가치 감소는 개인의 업무 능력이나 기술의 정도가 감소하는 현상에 더해 일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노동시장 환경이 변화하여 기존의 지식과 기술이 가지는 가치가 감소하는 현상을 모두 포함한다. 외부 환경 변화와 낙인효과로 인해 여성의 경력단절은 그 기간에 비해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예방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출산과 관계없이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현재 다양한 일·가정

* 이 글은 곽은혜 · 김영아 · 김근태(2024), 『인적자본 투자가 여성의 지속적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의 일부를 요약 · 정리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ekwak@kli.re.kr).

양립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여성의 지속적 근로를 야기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인적자본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높은 인적자본과 생산성을 지닌 근로자는 노동 시장을 이탈했을 때의 기회비용을 높게 인식하여 노동시장 결착도(labor market attachment)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리뷰』 이번 호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성에 있어 인적자본 투자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인적자본 투자 주체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 여성의 인적자본 투자와 경제활동 지속성에 대해 논의한 세 편의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먼저, 「여성 취업자의 인적자본 투자와 경제활동 지속성」에서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의 효과를 분석한다. 본문에서는 여성 취업자의 직업 교육·훈련 참여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교육·훈련 참여가 여성 임금근로자의 경력단절 위험을 낮출 수 있을지 분석한다. 「인적자본과 자영업 생존기간 : 성별 비교」에서는 자영업자의 인적자본과 자영업 생존율의 관계를 살펴본다. 자영업자의 인적자본을 구성하는 학력, 경력, 직업훈련 경험에 따라 자영업 생존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여 인적자본이 여성 자영업자의 일자리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비취업 여성의 직업훈련 성과」에서는 비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경력단절 여성을 포함한 비취업 여성들을 위한 직업훈련 정책은 상당 기간에 걸쳐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본문에서는 비취업 여성들을 위한 직업훈련의 특징, 성과, 한계, 정책 시사점에 대해 다양한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빈번하게 관찰되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의 재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의 인적자본을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취업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비취업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인적자본 투자의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위 연구들을 포함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와 인적자본 정책 연구가 계속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KLI**